

## 朝鮮末 日帝 參謀本部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

남영우\* · 渡辺理繪\*\* · 山近久美子\*\*\* · 이호상\*\*\*\* · 小林 茂\*\*\*\*\*

### Japanese Military Surveys and Making Topographic Maps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End of Chosun Dynasty

Young-Woo Nam\* · Rie Watanabe\*\* · Kumiko Yamachika\*\*\* ·

Ho-Sang Lee\*\*\*\* · Shigeru Kobayashi\*\*\*\*\*

**요약** : 본 연구는 조선왕조 말기에 일본 육군성 참모본부 소속의 장교들로 조직된 간첩대가 한반도에 침투하여 비밀측량을 실시한 배경과 과정을 파악하고 그 실체를 규명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지도들은 첩보장교들의 목적에 의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제작된 노상측도와 目測迅速圖로 제작된 것들이다. 종래에는 1885년경부터 노상측도가 행해진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882년 이소바야시 중위에 의해 최초로 노상측도가 시도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들은 1883~1887년에 걸친 정찰루트와 간행지도를 분석한 결과 단기간에 지도제작은 물론 정보수집을 위하여 역할이 분담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참모본부, 간첩대, 路上測圖, 目測迅速圖, 圖式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and proves the historical facts about the confidential land survey on Korean peninsula made by Japanese intelligence officers at the end of Chosun Dynasty. Under the command of general staff office of Japanese army, the military officers produced several maps through road map measurements and visual measurements. Although previous literature indicated road map measurements on Korea were originally implemented from 1885, this study confirms that road map measurements were initiated in 1882 by a lieutenant Isobayashi. Reflecting secret map making procedures, the individual military intelligence officers had specialized roles for swift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p production.

**Key Words** : general staff office, intelligence officer, road map measurement, visual measurement map, map measure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namyw@korea.ac.kr

\*\* 日本學術振興會 特別研究員(Research Fellow,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rie-wa@geoenv.tsukuba.ac.jp

\*\*\* 日本 防衛大學 准教授(Assistant Professor, National Defence Academy), ykumiko1855@gmail.com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박사후 연수연구원(Post-Doc. Researche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hs0812@hotmail.com

\*\*\*\*\* 日本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人文地理學教室 教授(Professor, Department of Human Geography, Osaka University), skobayas@let.osaka-u.ac.jp

## 1. 서론

고산자 김정호가 1864년 전근대적 한반도 지도를 완성한지 14년 후인 1878년부터 일제 참모본부 장교들로 구성된 간첩대에 의해 지도가 제작된 것은 이미 남영우(1992; 2007; 2009)와 Nam(1997)의 일련의 연구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이 비밀리에 측량한 결과물인 지도의 소재와 내용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없다.

과거 일본의 측량기술은 한반도로부터의 불교전승과 더불어 전해진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은 측량술의 교류는 18세기 초기까지 지속되었다(李鎭昊 · 全炳德, 2007, 435). 19세기 초에는 이노우[伊能忠敬, 1745~1818]라는 걸출한 지도학자가 배출되면서 당시로서는 일본 최고수준의 지도로 평가받는 「大日本沿海輿地全圖」가 1821년에 작성되기도 하였다.<sup>1)</sup> 그러나 일본의 근대적 지도제작은 18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없었다.

일본은 세계 및 아시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국내정세가 혼탁해지면서 주변국에 대하여 강경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즉 메이지 정부는 征韓論을 주장한 사이고[西郷隆盛]의 퇴진으로 야기된 무사계급과 국민감정을 무마하고 그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하여 1874년의 타이완 침략에 이어 1875년 9월 20일에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동원하여 강화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단행하였다. 그때부터 육군성의 참모본부 전신인 '제6국'은 최초로 해외첩보활동을 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 말기에 일본 육군성 참모본부 소속의 첩보장교들이 한반도에서 비밀측량을 실시한 배경과 과정을 파악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필자들은 2008년 3월과 9월, 2009년 3월의 수차례에 걸쳐 일본군 장교들의 족적을 기록한 색인도와 측량지도를 미국의 의회도서관에서 그 소재를 확인하고 조사를 행하였다. 미국의회도서관에 구일본군이 제작한 지도와 항공사진이 소장되어 있다는 보고는 이미 슈리 · 久武(2003; 2009)에 의해 행해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지도는 주로 일본에 육지측량부가 만들어지기 전인 1883(明治 16년)~1887년(明

治 20년)의 5년간에 걸쳐 측량된 간첩대의 지도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지도는 한국지도학사상 혼란기라 불리는 시기에 제작되어(이기석, 2009) 120~130여년 만에 한일양국에서 처음 햇빛을 보게 된 지도들로 도식이 확정되기 이전인 중세 말 또는 근대 초기의 지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한국지도학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2. 일본 육군참모본부 간첩대의 파견과 측량 배경

### 1) 간첩대의 파견 경위

19세기 후반부터 구미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공업 원료와 제품시장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렸다. 제국주의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고 현지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철도 · 광산 · 공장 등을 경영한 결과,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프랑스의 파리, 포르투갈의 리스보아, 스페인의 마드리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은 이미 세계도시(global city)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Clark, 1996).

이 무렵, 일본은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미국을 비롯한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 네덜란드 등의 압력으로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쇄국정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개국 후의 일본 국내정세는 幕府의 개국정책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혼란에 빠졌다. 藩의 젊은 무사계급과 지방호족들이 중심이 된 외세반대세력은 막부를 움직여 개국정책을 번복시켰으나, 막부는 미국 · 영국 · 프랑스 · 네덜란드의 4개국 연합함대의 공격을 받게 되자 무력으로 외세에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부국강병책의 기반 위에 근대화를 추진하기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한 조슈한[長州藩]과 사쓰마한[薩摩藩]을 중심으로 한 반란으로 막부의 권위는 실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15대 쇼군[將軍] 도쿠가와[德川慶喜]는 1867년 정권을 막부에 반납하게 되어 260년간 지속되어온 에도막부[江戶幕府]가 폐지되었다. 국

왕 중심의 중앙정부체제를 갖춘 일본은 1868년 연호를 게이오[慶応]에서 메이지[明治]로 바꾸었다(歷史學研究會 編, 1991). 이것이 바로 明治維新이다. 새로운 중앙 정부는 1873년 국민개병제로 징병제를 바꾸면서 부국강병의 노선을 걷기 시작하였다. 1873년에 이른바 征韓論이 대두된 이후, 일본은 세이난[西南]전쟁을 치르면서도 군국주의의 기반을 다져나아갔다. 이 무렵 일본의 수도 도쿄는 이미 세계 10대 도시의 반열에 올라서 있었다(Clark, 1996).

일본은 1871년 7월 28일 병무성 관계가 변경되면서 참모국이 신설되었다(佐藤, 1988). 參謀本部(1882)가 편찬한 『參謀沿革誌』에 의하면 참모국의 하부기구로 간첩대를 두어 평상시에는 지리 정탐지도의 편성을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조직은 육군 중위를 책임자로 하는 일본 육지측량부의 산실이였다. 주로 장교와 畫工들로 구성된 간첩대 요원들은 이듬해 1872년 3월 15일 육군성으로부터 「巡檢參謀將校職務大略」이 하달됨에 따라 간첩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들 중 朝鮮組와 滿洲組는 각각 2~3명이 한 組가 되어 밀정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간첩대의 임무는 측량이 유일할 것이었고, 측량 이외의 업무는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으로 생각된다(佐藤, 1988).

메이지 정부는 1873년 사이고 참의원을 한반도에 파견하고 조선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는 한편, 북방의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수중에 넣고 남방의 난세이 제도를 영토화하면서 팽창주의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한반도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낀 군부는 1869년에 이미 조직된 참모국 간첩대를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1872년 9월에 외무대승 하나부사 [花房義質]를 수행한 기타무라[北村重頼] 중위와 벳부 [別府晉介] 소위는 한반도에서 첩보활동을 개시한 인물이었다(陸軍參謀本部, 1888). 그들 장교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조선인으로 위장하여 주로 삼남지방을 정찰하였다. 청국의 만주에 대한 첩보가 1877년 시마히로 [島弘毅] 중위가 최초였으므로, 한반도에 비해 5년이나 뒤늦었다(李進熙, 1990).

육군성 산하의 제6국을 폐지하고 참모국을 설치한 육군성은 1874년 측량도구와 유럽의 측량서적을 구입하여 번역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해 연말 참모국 산하에 5개 課가 7개 課로 확대되었다(표 1, 2). 각 과의 사업규모로서는 제3과와 제5과가 가장 유력한 부서였다. 제3과는 프랑스와 독일의 군사제도를 연구하는 부서였고, 제5과는 지도를 제작하는 부서였다. 제5과는 지도정지과로 39명의 가장 큰 부서이며, 그 다음이 제3과

표 1. 일본 측량기구의 職制變化

시기	부서명칭
1871년 7월	兵部省 陸軍部 參謀局
1872년 2월	陸軍省 參謀局 問諜隊
1873년 4월	陸軍省 第六局
1874년 2월	陸軍省 參謀局(제5과·제6과)
1878년 12월	陸軍省 參謀本部(지도과·측량과)
1884년 9월	陸軍省 參謀本部 測量局(삼각측량과·지형측량과·지도과)
1886년 3월	參謀本部 陸軍部 測量局(삼각측량과·지형측량과·지도과)
1888년 5월	參謀本部 陸地測量部(삼각과·지형과·제도과·수기과)

출처: 필자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2009)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표 2. 1874년 참모국 조직과 인원의 증가

부서	개편시기		담당업무
	6월 29일	12월 31일	
국장	1	1	책임자
첩보처리	0	1	
전령사	0	2	
제1과	6	12	총무
제2과	0	2	아시아兵制
제3과	10	25	歐美兵制
제4과	0	7	兵史
제5과	20	19	地圖政誌
제6과	8	10	측량
제7과	5	5	文庫
합계	50	83	

출처: 佐藤(1988, 363)

인 35명의 歐美兵制課이다. 특히 지도제작과 관련된 제5과와 제6과의 업무내용은 근대지도 측량방법을 확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바현[千葉縣] 나라시노[習志野]의 지도 작성과 석판·동판인쇄의 복제 등이었다. 그들이 실습용으로 제작한 1:1만 축척의 나라시노 지도는 일본육군의 '꿈의 지도'로 알려져 있다.

이 지도제작에 동원된 측량사 중 주목할 만한 인물은 본 연구의 대상 중 하나인 카이즈[海津三雄] 육군 소위이다. 그는 당시 도쿄鑛臺 공병대대 소속이었다(佐藤, 1988). 참모국의 인원이 1874년 6월과 12월 사이에 대폭 증원된 사실은 이 시기가 일본 참모조직의 확대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군부의 개방화 움직임에 따라 지도 제작이 자유화되고 민간인들에게 판매되기도 하였다(長久保, 1937).

1876년 일본사절단에 동행한 해군사관이 인천-서울 간을 측량하여 1883년에 간행한 「從朝鮮國楊花嶺至濟物浦陸路見取圖」가 일본군 장교에 의한 최초의 지도라 추정하는 경우도 있으나(小林·岡田, 2008; 岡田·小林, 2007), 1878년에 간행된 카이즈의 「朝鮮國長浦江口略圖」가 더 빠르다. 1877년 참모국 소속의 카이즈 소위는 개항장 교섭차 조선으로 파견되는 하나부사 대리공사를 수행하면서 한반도의 정황탐색을 명령받았다(參謀本部, 1882). 참모본부의 「歷史草案」에는 카이즈 소위의 비밀측량이 한반도에 대한 첩보명령의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1879년 개항장 협정서에 조인하기 위해 하나부사가 다시 조선에 왔을 때에도 경인지방과 부산에서 첩보활동을 행하고 있었다. 1880년에는 어학연수생들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호리모토[堀本禮藏] 중위가 서울에 파견되었다. 그는 1882년에 발생한 임오군란의 와중에 조선인에 의해 살해된 바 있다.

## 2) 간첩대의 측량 배경과 이소바야시의 사망

### (1) 간첩대의 측량 배경

임오군란은 하급군인과 도시민민의 민씨 정권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대원군 정권이 들어서자 일본과 청국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개입하였다. 참모본부는 호리모토의 후임으로

미즈노[水野弘毅]와 마쓰오카[松岡利治] 중위 등을 조선에 파견하는 한편, 하나부사 공사는 세토구치[瀬戸口重雄] 대위, 이토[伊藤祐義]와 이소바야시[磯林眞三] 중위 등의 장교와 두 명의 관서국(關西局) 요원을 대동하고 한성부에 도착하였다(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4-5).

장교들로 구성된 간첩대 요원들은 조선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청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니 일본군을 동원하여 서울과 평양을 무력 점령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참모본부에 상신하였다(參謀本部, 1882). 당시 청국은 일본군을 견제해 달라는 대원군의 요청에 따라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서울로 이동시켰다. 서울에 입성한 청국군대는 대원군 정권과 일본측을 중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대원군을 청국으로 납치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한성부와 궁궐을 장악하였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1876년의 강화도조약(朝日修好條約)과 1882년의 제물포조약으로 파견장교들의 첩보활동이 전보다 용이해졌다. 즉 강화도조약 제7조에 “조선은 일본의 해안측량을 허용한다.”라는 조항과 제물포조약 중 修好條規續約 제2조에 “일본 공사·영사 및 수행원·가족의 조선내지 여행을 허락하며, 여행할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대조하여 호송한다.”라는 조항 때문이었다. 이들 조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운요호 사건과 임오군란에서 비롯된 조약이었다(한국근대사학회, 2008).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 전인 1875년에는 이미 육군성으로부터 각국 공사관에 파견되어 주둔해 있던 참모장교들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정세파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반도에서 암약하는 장교들은 조선정복과 청국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1883년에는 축척 1:1만의 「朝鮮國京城之略圖」와 축척 1:2만의 「漢城近傍圖」가 제작되었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에서 발견된 지도 중 이소바야시·와타나베·카이즈·오카·미우라·가라다 6명의 장교가 측량을 위해 첩보활동을 행한 경로를 추적해보고 그들이 제작한 지도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그들 중 이소바야시 중위는 서울, 와타나베 소위는 부

산, 카이즈 소위는 원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호조규속약의 발효로 1882년 12월부터 국내여행에 외교특권이 부여됨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광역적으로 첩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조선민중들의 반발과 조선조정의 저항으로 1883년 3월에 이소바야시 중위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參謀本部, 1882). 당시 참모본부는 청국에도 첩보원을 파견하였으나 주로 청국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陸軍參謀本部, 1888). 이 사실은 청국인과 다른 조선 백성의 대일감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제의 참모본부(1882) 『參謀沿革誌』 「歷史草案(資料編 1883년 11월 12일 項)」에 의하면, 참모본부는 군사정보를 탐지하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1880년 지안[輯安]에서 벌채도중 우연히 발견된 광개토대왕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참모본부는 급히 사코[酒匂景信] 소위(후에 중위 승진)를 파견하였다. 비문의 탁본과 압록강 연안의 정보수집에 성공한 그는 1883년 8월 참모본부장 오야마[大山巖]에게 한반도를 경유하여 귀국하겠다는 의견서를 상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쓰라[桂太郎] 관서국장은 수호조규속약 때문에 공사관원으로 위장하는 것이 위험하므로 선편으로 귀국할 것을 명하였다(李進熙, 1990). 당시 한반도의 상황은 1년 전 호리모토 중위가 사망하는 등의 불안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참모본부장의 명령은 당연한 것이었다.

## (2) 이소바야시 대위의 사망

원산에 주재하던 카이즈 소위가 참모본부 명령에 의거 일시 일본으로 귀국함에 따라 그의 후임으로 1884년 5월 오카[岡泰郷] 중위가 부임하였다. 12월에는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급히 서울로 향하던 이소바야시 대위와 어학연수생 3명이 조선인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參謀本部, 1882). 그는 1884년 마포 일대의 주요 시설을 담은 「麻浦近傍圖」와 「自麻浦至文殊山城路上圖」를 완성한 직후에 살해된 것이다. 제1대 서울주재 첩보장교였던 호리모토에 이어 제2대 장교인 이소바야시가 조선인에 의해 살해된 것은 조선의 항일운동사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건이었다.

『近世人物誌』의 기록에 의하면(그림 1 참조, 이소바



그림 1. 이소바야시를 추모하는 신문기사 부록 (1886년 12월 11일자)

출처: 早稻田大學 圖書館, 磯林大尉3號文庫

야시는 일본 고치현[高知縣] 출신으로 1871년 藩兵으로 들어가 상경하여 1874년 육군 소위試補로 임명되어 중위로 진급하였다. 그는 1878년 8월 근위병의 폭동사건이 발생하자 폭도들을 궁궐 밖으로 유인하여 진압하는 공을 세웠다. 『近世人物誌』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의 대범함과 기민함에 놀랐다고 전한다. 1882년 7월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한성주재 일본공사관으로 발령받아 대위로 승진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소바야시 대위가 충청도(일본측 기록에는 강원도) 요지의 정보수집을 하던 중 공사관부터 일본군이 청국군의 공격을 받는다는 급보를 전해 듣고 급거 귀경하던 중 수백 명의 성난 군중으로부터 투석을 받아 수행원 두 명과 함께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의 내용은 한국측 기록 및 참모본부의 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의 인생축적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그를 살해한 한국인은 22세의 김대홍(1863~1884)이

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그는 천안 출신으로 유기 상인을 따라 상경하여 객점에 머물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일본병사가 궁궐에 난입하여 대신들을 살육하고 정변의 주도세력들이 일본군과 함께 궁궐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격분하여 그들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궁궐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 1884년 11월 20일 오전 말을 타고 지나가던 이소바야시 대위를 23세의 원한갑을 비롯한 다른 조선인들과 함세하여 살해하였다. 1884년 11월 24일 갑신정변 사후처리를 위해 체결된 한성조약에 의거 범인을 체포하여 처벌하도록 결정하였다. 김대홍은 12월 6일 남대문 밖에서, 원한갑은 12월 3일 포도청 포교에게 체포되었다(金正明, 1963).

이소바야시 대위는 1882년 10월 한성의 일본공사관 주재를 명받아 공사의 호위임무를 담당하였다(야まと新聞, 1886). 대위로 진급한 그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정보수집을 하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급거 귀경하다 참모본부 어학생 아카바네[赤羽平太郎] 등과 함께 남대문 밖 청과 갈오리에서 살해된 것인데, 혼란스러운 와중에 무슨 이유로 일본군 장교가 호위병 없이 말을 타고 이동하였는지 밝혀진 바 없다. 공사관 주재원(무관) 신분일 경우에는 군복을 입을 수 있겠으나, 정보수집 시에 민간인으로 위장해야 하는 첩보장교의 기본수칙을 이소바야시가 왜 어겼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이소바야시는 임오군란의 와중에 호리모토 중위가 조선인에 의해 살해된 지 두 달 후인 1882년 8월에 세토구치 대위와 함께 「從仁川至漢城圖」를 작성하였으므로 항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유해는 2년 전에 사망한 호리모토 중위와 함께 인천에 매장되었다(橋本, 1884).

이소바야시 일행의 사망사건으로 김대홍의 사형집행일이 다가오자 일본측 곤도[近藤眞鋤] 임시대리공사는 1884년 12월 12일 조선측 김굉집 전권대신에게 연락하여 이틀 후에 주범격인 김대홍을 처형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곤도 공사는 12월 13일 전권대신인 좌의정 김굉집과 만나 김대홍의 처형은 일본국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일본 관원의 입회하에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굉집은 제물포조약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본측에 통보하지 않았음을 사과하였다. 결국 대리공사

는 한 명의 장교와 공관원 2명, 호위병 1개 소대를 거느리고 입회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조선인 청년 김대홍과 원한갑은 1884년 12월 14일 일본군대의 감시 하에 무참하게 처형되었다.<sup>3)</sup>

1885년 4월, 일본 육군 오야마[大山巖] 백작은 임오군란으로 사망한 호리모토와 이소바야시 대위 등 5명의 유골을 인천에서 도쿄의 야스쿠니[靖國]신사로 옮겨 합사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들의 유골은 1885년 5월 5일 오후 8시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招魂式이 거행되고 합사되었다(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2009). 이로써 호리모토와 이소바야시는 일본육군의 영웅이 된 것이다.

조일수호조약 체결 이후 최초로 일본군이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군함과 병력을 파견하는 등 압력을 가하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은 유감을 표명하고(이선근, 1961), 또 청국의 리홍장[李鴻章] 역시 일본군과의 전투가 양국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들 장교들이 공사관 직원이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들은 참모본부 소속의 첩보장교의 신분을 감추고 한반도를 정탐한 첩보원이었다. 비록 제물포조약 중 수호조규속약 제2조에 의거하더라도 조선 국내여행만 허락한 것이지 첩보행위를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인 1879년 경기감사 조인희가 조정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카이즈 일행이 육로를 따라 서울로 향하는 것을 관찰관이 조약에 없다는 이유로 저지한 사례가 있다(朝鮮王朝實錄, 1879).

### 3. 간첩대의 측량과 정찰 루트

#### 1) 첩보장교의 측량

한반도에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제는 더욱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음을 간파하였을 것이다.<sup>4)</sup> 일본해군은 한반도 해안선을 측량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sup>5)</sup> 육군의 지도제작은 측량상의 난관이 따르게 되므로 실측에 기초한 지도 제

작이 지연되고 있었다.

일본은 1877년에 발생한 세이난 전쟁에서 징병제군대에 의한 近代戰을 처음 치렀으나 정밀한 작전지도가 없어 곤란을 겪었다. 이에 참모본부 측량과는 1878년 「全國測量速成意見」을 상신하여 1879년에 「全國二万分一地圖作成計劃」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長久保, 1937; 牛越, 2005). 따라서 그 이전에 제작된 지도는 일정한 도식에 근거한 정식지형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1875년에는 내무성 지리국이 간토(關東)지방에서 삼각측량을 하거나 수준측량이 처음으로 행해졌고, 1878년에는 기선측량과 경위도측량이 행해진 바 있다(中野, 1978).

일본은 1884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만국측지학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경도를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정하고, 1885년 미터법조약만국 위원회에 가맹하여 측량단위를 미터법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中野, 1978). 최초로 프러시아식 다면체투영법이 채택되고 지형을 등고선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도식은 육군에 의해 프랑스식(明治 13년식)으로부터 독일식(明治 18년식)으로 변경되었다. 참모본부 측량국에서는 1880년 말 도쿄 부근의 1:2만 축척의 신속 측도를 행하고 1886년에는 최초의 지형도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高木, 1931).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지도들은 1878~1887년의 지도일 뿐만 아니라 은밀하

게 측량된 것이므로 일정한 도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은 1880년부터 프랑스식 도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식을 적용했어야 마땅하지만 측량사정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sup>6)</sup>

당시 참모본부 장교들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1883년 6~8월의 일본측 기록이 있다. 카이즈가 일본 「東京地學協會報告」에 투고한 地理誌 형식의 여행기에 의하면(海津, 1880; 1884a; 1884b), 그는 2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47일간에 걸친 정탐일정 중 “함경도 덕원을 지나 평안도 양덕에 당도하여 조선군졸 수명의 영접을 받고 민가에서 오찬을 먹었다. 현감은 지병을 이유로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성천에 이르러서는 5필의 말과 10여명의 병졸이 마중을 나왔으며, 여관에서 府使 심상학과 觀察使 김영수의 접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였다. 카이즈는 당시의 한반도 여행을 임진왜란 이후 최초로 행해진 조선기행의 효시라고 기술하였다. 그들은 「元山港居留地圖」와 「義州往復路上圖」를 작성하기 위해 하루에 조선리 기준으로 최소 20리에서 최대 100리까지(평균 50~80리) 빠른 속도로 비밀측량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카이즈 외에는 발견된 것이 없다.

1886년 참모본부로부터 첩보활동에 지중하라는 명령을 받은 카이즈 대위는 지도제작을 멈추고 정보수집에 돌입하였다. 그 당시 카이즈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표 3. 첩보장교의 명단과 측량지역(1883~1887)

계급	성명	병과	측량지역
소위 중위 대위	카이즈[海津](1853~?)	공병	원산거류지(1883), 의주(1883), 원산-용지원(1883), 함경도(1883), 원산-문천(1883), 전관교-광주로(1885), 제물포-석천원(1885), 제물포기주변(1885), 강원도(1885-1886)
중위 대위	이소바야시[磯林](?~1884)	보병	양화진-오류동(1883), 평양(1883), 마포(1884), 마포-문수산성(1884), 제물포거류지(1884)
중위 대위	와타나베[渡?]	보병	경상도(1883)
대위	오카[岡](?~1905)	보병	함경도-평안도(1884), 북청-중령진(1885), 덕원-안정(1885), 한성-원산(1886)
대위	미우라[三浦]	보병	한성-부산(1886), 한성부근(1887), 평양-영흥로(1887)
중위 대위	가라다[柄田]	보병	순천-창원(1887)

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견된 한반도 지도 중 1883~1887년 지도를 참조하여 작성

규장각 소장의 『黃海道關草』와 『平安道關草』의 한국측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1886년 7월 5일과 10월 5일 연 연부와 금천군에서 외교와 통상을 관장하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sup>7)</sup>으로 보낸 전문이다. 이것에 의하면 “지난 7월 일본육군 공병대위 카이즈가 공문을 가지고 두 지역을 지나다가 각각 엽전 250량과 200량을 청구하기에 대급하였으니 이를 별아문에 추수토록 청구서를 보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11월 의주로부터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보낸 전문에는 일본 영사관원 카이즈에게 제공한 엽전 200량을 보내달라는 보고도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의 첩보장교들은 필요할 경우에 공사관원의 신분을 밝히고 수호조규속약에 의거 관아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의 조선측 기록에 의하면 카이즈 이외의 장교들에 관한 협조요청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관아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小林·岡田(2008)이 지적한 것처럼 공사관 소속이었던 이소바야시만이 여행허가를 받아 관아의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조선측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참모본부는 촉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한반도에 파견된 첩보장교들에게 목측에 의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目測迅速圖를 제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측량은 나침반을 고정시킨 휴대용 제도판을 수평으로 하고 보측에 의해 거리를 측량하면서 제도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들은 주로 비밀측량의 속성상 路上測圖를 채택하였는데, 종래에는 1885년경부터 노상측도가 행해진 것으로 기술되었다(山近·渡辺, 2009; 小林·山近·渡辺, 2009). 그러나 이번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견된 지도에서 1882년 이소바야시에 의해 최초로 노상측도가 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사실 일본군 장교들에 의한 측량은 1876년에 측량되어 1882년에 간행된 것이 최초의 지도임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6명 장교들이 제작한 지도는 표 3과 같다.

6명의 장교들 중 가장 먼저 조선에 온 카이즈는 1870년대 후반에는 주로 한성에 체류하다가 1880~1882년과 1882~1883년에는 각각 부산과 원산으로 체

류지를 옮긴 후 1885년에 한성으로 돌아왔다. 이소바야시는 1882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서울에 체류하였으며, 와타나베 역시 1883년부터 부산에 체류하며 활약하였다. 오키는 주로 원산에 주둔하였고, 미우라와 가라다는 각각 부산·서울과 부산에 체류하며 활약하였다. 이들의 체류지와 측량지역을 비교해 볼 때 필요에 따라서는 체류지를 벗어나 타지방으로도 왕복하며 활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장교의 정찰 루트

지도제작과 정보입수를 위한 장교들의 활약은 일정 부분 역할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들의 정찰 루트를 알 수 있는 그림 2의 색인도<sup>8)</sup>는 원래 1894년 7월 2일에 육군문고로서 인쇄된 것이지만, 이것의 초판본(영남대 박물관)은 1875년 12월에 작성되어 이듬해 초에 간행된 지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1877년 직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渡辺·山近·小林, 2009). 1883~1887년의 5년간에 걸친 장교들의 정찰 루트는 이노우의 측량과 유사하게 서로 중복되는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안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1883~1885년 기간 중에는 한반도를 종횡으로 누비며 조사하면서 동해안 일대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1886~1887년 기간 중에는 한반도를 종단하면서 서해안 일대의 조사에 중점을 두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장교별로 보면, 카이즈는 북부지방에 이어 강원도를 정찰하였고, 이소바야시는 주로 중부지방을 활동무대로 하였다. 이와는 달리 와타나베와 가라다는 경상도와 전라도 혹은 충청도에 걸친 남부지방의 조사에 주력하였고, 오키는 주로 북부지방을 활동무대로 삼았다. 그리고 미우라는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포함한 광역적 조사를 행하였다. 이들의 정찰 루트를 보면, 각 장교들이 활동한 지역과 그들이 제작한 지도 간에 불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장교들의 정찰활동이 반드시 지도제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지도제작 이외에도 『兵要地誌書』의 간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군사정보를 탐지할 목적도 지니고 있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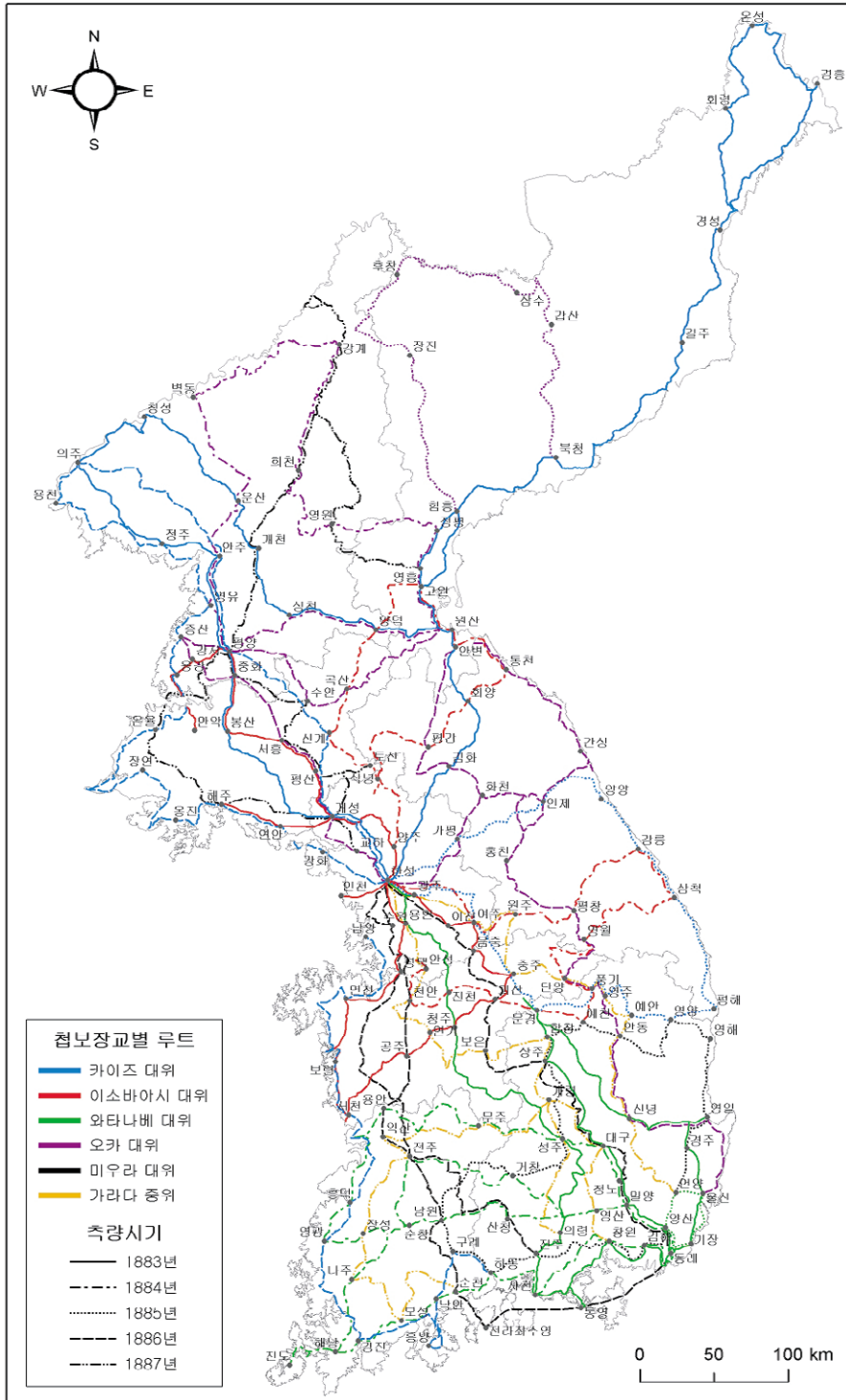


그림 2. 참모본부 장교의 정찰루트  
출처: 參謀本部 索引圖(1887)를 참조하여 재작성

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의 일부는 카이즈의 일련의 기고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海津, 1880; 1884a; 1884b). 특히 주목할 것은 미우라와 오카의 행적이다. 그들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광역적 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작한 지도가 적은 편이다. 이는 그들의 활동목적이 지도제작 이외에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을 남겨두고 싶다.

그림 3은 전술한 그림 2의 색인도에서 정찰 루트를 각 장교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1883년 6~8월에 행해진 카이즈의 정찰 루트는 그의 기행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산-마식령-양덕-성천-영변-창성-의주-정주-안주-평양-황주-봉산-온정-개성-장단-고양-한성-포천-김화-회양-안변-원산을 경유한 왕복 루트였다(海津, 1884a). 그리고 같은 해 10~12월에는 원산-영흥-정평-함흥-북청-단천-길주-경성-경흥-온성-회령-부령-경성을 거쳐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루트였다(海津, 1884b). 여기서 그가 1880~1883년 기간 중에는 선행연구(村上, 1981)와 달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이 아니라 주로 북부지방을 정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85년 5월부터 카이즈는 한성-광주-여주-충주-문경-영주-영양-울진-강릉-인제-춘천-가평-한성을 경유하여 동해안 일부를 비롯한 중부지방을 조사하였다. 색인도(그림 2)의 루트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그해 7월에 한성에서 제물포에 이르는 도로와 제물포기지 주변 등을 측량하여 제작한 지도들도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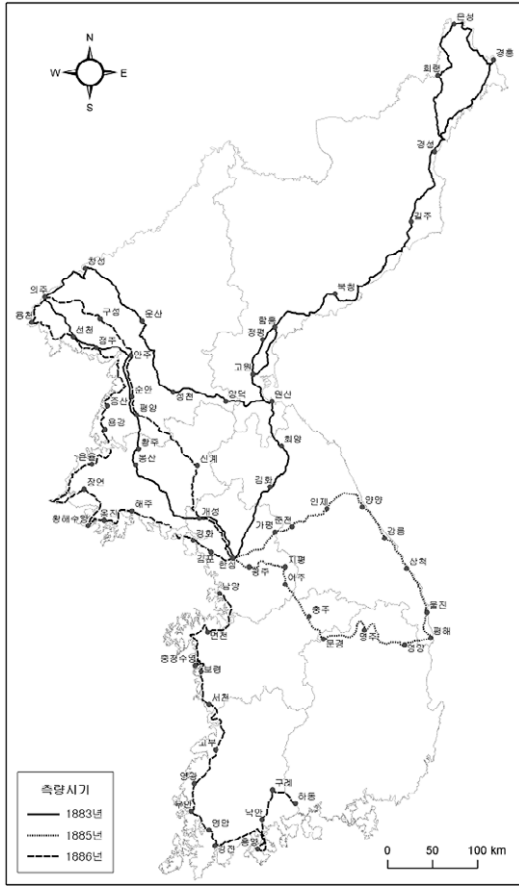
또한 카이즈는 1883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원산에서 창성, 의주를 경유하여 평양, 한성 등을 돌아오면서 한반도의 서북 내륙지역을 정찰한 반면, 1886년에는 서해안 일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때의 정찰 루트는 두 개의 경로로 나뉘는데, 하나는 남양-서산-보령-김제-고창-영광-무안-영암-강진-홍양-낙안-구례-하동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안 일대를 정찰한 것이고, 다른 루트는 한성 이북의 서해안 일대를 정찰하는 코스로 한성-강화-해주-용진-풍천-용강-증

산-관산-철산-용천-의주-구성-안주-숙천-평양-상원-금천-개성-고양-한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이 루트는 1883년에 측량하지 못한 한반도 서북부 내륙의 다른 주요 도로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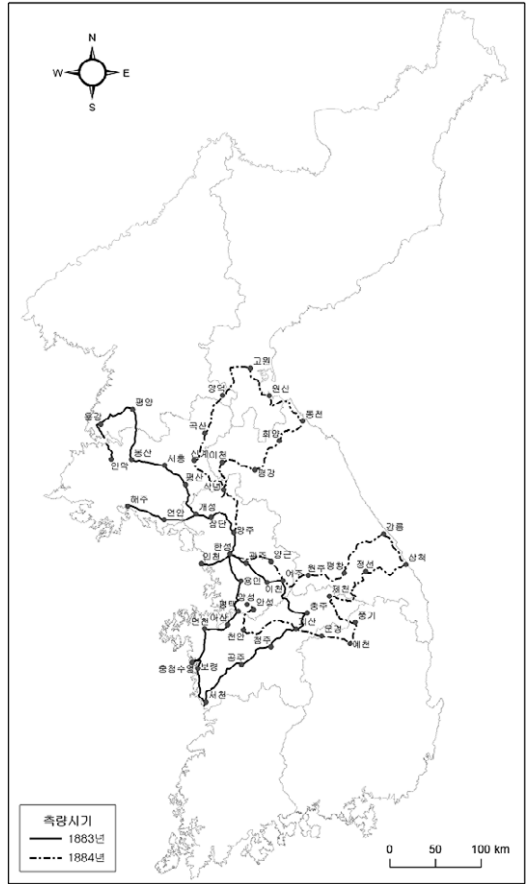
카이즈가 조사한 루트의 특징은 주로 한성이나 원산에서 중국 및 러시아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들을 정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성에서 개성과 평양을 거쳐 의주에 이르는 경로는 이례적으로 1883년과 1886년 두 차례에 걸쳐 측량하였다. 그리고 개성과 평양, 안주와 의주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두 개씩 조사하였는데, 한성과 개성, 평양과 안주를 이동하는 길은 이미 1883년에 측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 내륙의 도로를 조사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측량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카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장교들도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정찰하였고, 지도의 내용도 대부분 도로와 그 주변의 주요 지형지물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3(2)는 이소바야시의 정찰 루트를 나타낸 것이다. 한성을 중심으로 정탐활동을 한 이소바야시는 그림 2의 색인도에서 나타난 측량시기 이전부터 한성, 인천, 임진강 일대를 중심으로 측량을 하였다. 그는 1883년에 이르러 정찰 범위를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하였는데, 크게 3개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루트는 한성(오류동), 양화진, 김포, 양천, 부평, 제물포 등을 측량하였는데, 이는 1882년 9월에 조사한 한성-인천 루트의 후속 작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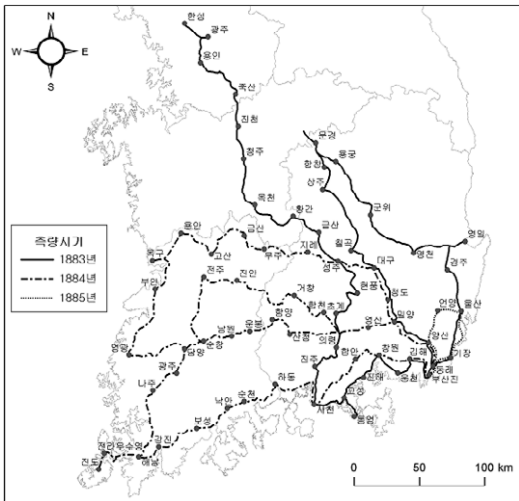
두 번째 루트는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내륙지역을 측량하였는데, 한성-광주-이천-여주-음죽-충주-괴산-청주-공주-서천-남포-보령-홍성-아산-평택-용인-과천-한성으로 돌아오는 경로였다. 여기서 카이즈의 정찰 루트와 중복되는 곳이 있는데, 서천에서 보령을 경유하여 충청수영에 이르는 루트이다. 또한 각 도의 감영·수영·병영·행영 등 주요 군사기지 및 행정기관이 입지하였던 동래·창원·대구·전주·공주·광주·원산·해주·평양·함흥 등의 주요 거점들에 대해서는 색인도에 별도로 표시를 하거나 여러 장교가 수차례 정탐을 하였으며, 지도에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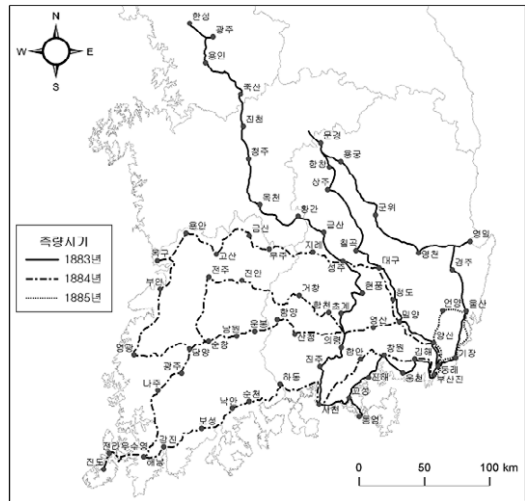
(1) 카이즈 대위 경찰루트



(2) 이소바야시 대위 경찰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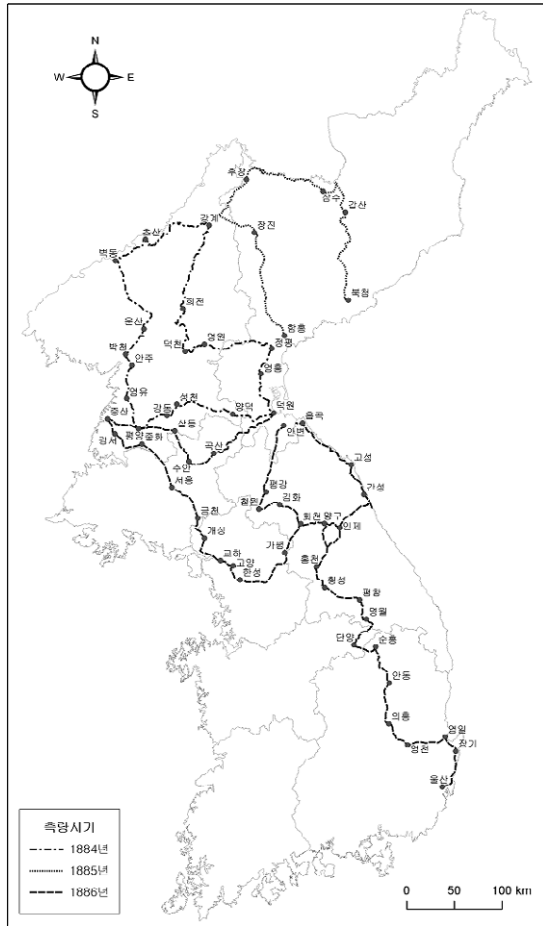
(3) 와타나베 대위 경찰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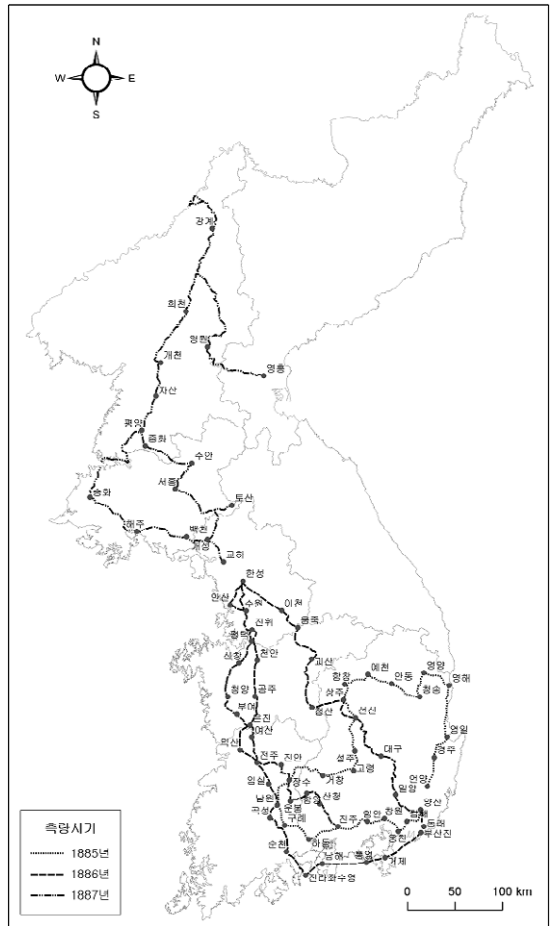
(4) 가라다 중위 경찰루트

그림 3. 장교별 경찰 루트

출처: 參謀本部 索引圖(1887)를 참조하여 재작성.



(5) 오카 대위 정찰루트



(6) 미우라 대위 정찰루트

그림 3. 계속

같이 군사시설과 행정기관에 대한 첩보활동도 측량의 목적 중의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루트는 한성에서 양주-적성-장단-개성-평산-서흥-황주-평양-강서-용강-삼화-안악에 이르는 루트와 개성에서 연안을 경유하여 황해감영이 있던 해주에 이르는 루트로 나뉜다.

1883년에 중부지방의 서쪽을 정찰한 이소바야시는 이듬해 중부지방의 동쪽을 정찰하기에 이른다. 그는 먼저 한성에서 원산을 경유하여 돌아오는 루트를 측량하였는데, 양주-연천-삭녕-이천-평강-회양-통천-안변-원산-문천-고원-양덕-신계-삭녕으로 이어지

는 루트가 그것이다. 이후 그는 다시 한성-여주-원주-평창-강릉-삼척-정선-영월-단양-풍기-예천-문경-괴산-천안-직산-안성-양성에 이르는 루트를 측량하였는데, 양성에서 측량이 끝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소바야시가 갑신정변 이후 급거 귀경하던 중 김대흥 등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천안에서 직산을 거쳐 안성일대를 측량하다가 공사로 부터 급보를 받고 한성으로 급히 돌아오다가 남대문 부근에서 살해된 것이다.<sup>9)</sup>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와타나베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정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부산

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는데, 1883년 6월에 부산진-동래-울산-경주-영일-영천-문경-상주-대구-밀양-양산-동래로 돌아오는 루트를 측량하였다. 또한 부산진에서 김해-창원-진해-고성-통영-사천-진주-의령-성주-금산-옥천-청주-죽산-용인-한성에 이르는 루트도 측량하였다. 와타나베가 1883년에 정탐한 주요 내용은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 한성으로 이동하는 주요 루트들을 조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1883년에 상기 3명의 장교가 정찰한 루트들을 종합해보면, 조선의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한성·부산·인천·원산 등을 거점으로 조선의 주요 도시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로에 대한 정보수집이 주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정찰 루트를 주요 지선도로까지 확대하며 한반도 전역의 도로망과 주요 행정 및 군사시설들에 대한 첩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가라다는 6명의 장교 중에서 가장 늦게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색인도에 나타난 1887년의 정찰 이후에도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1887년 5월부터 순천에서 출발하여 보성-나주-정읍-전주-무주-개령-대구-창원에 이르는 루트를 측량하였다. 이후 의령에서 한성을 경유하여 언양으로 남하하는 루트도 정찰하였다.

그림 3(5)는 오카의 정찰 루트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원산을 거점으로 첩보활동을 시작하여 1884년 11월에

평안도 일대를 중심으로 측량을 실시하였다. 원산진을 출발하여 덕원-문천-정평-영원-희천-강계-초산-벽동-문산-박천-영유-평양-강동-양덕-덕원으로 돌아오는 루트였다. 또한 이듬해 10월에는 함경도 서쪽지역을 정찰하였는데, 북청에서 갑산-삼수-후창-장진-함흥에 이르는 루트였다. 이때 오카는 덕원과 정평간의 해안과 내륙의 도로들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원산만과 함흥만 일대를 별도로 다시 측량한 것이다.

오카는 1886년에는 원산 이남지역에 대한 정찰에 착수하였다. 대표적으로 한성에서 개성, 증산, 평양 등을 경유하여 덕원에 이르는 루트를 측량하였으며, 그 외에도 안변과 함곡에서 각기 양구와 인제를 경유하여 흥천-평창-단양-안동-영천-영일-울산에 이르는 루트를 정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 3(6)의 미우라가 정찰한 루트를 살펴보면, 미우라는 부산과 한성을 거점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면서 측량을 하였다. 1885년에는 경상도 일대를 측량하였는데, 양산-창원-진주-하동-남원-장수-거창-상주-안동-영양-영일-언양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정찰하였다. 이듬해 5월에는 부산진에서 출발하여 거제-통영-남해-전라좌수영-순천-남원-전주-여산-공주-천안-수원-과천-한성-이천-음성-보은-상주-대구-밀양-양산을 경유하여 다시 부산으로 회귀하는 루트였다. 6명의 장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우라는 부산진에서 전라좌수영까지 육로가 아닌 해로로 이

표 4. 첩보장교별 제작 지도 목록

장교명	제작연도	제작 지도의 도업명
카이즈[海津]	1883~1886년	江原沿海往復圖 I · II, 元山港居留地圖, 義州往復路上圖, 自元山至龍池院路上圖, 自元山津至文川郡路上圖, 自箭串至廣州路上圖, 咸鏡道路上圖, 自濟物浦至石川院略圖, 濟物浦墓地近傍圖
이소바야시[磯林]	1883~1884년	麻浦近方圖, 自麻浦至文殊山城路上圖, 自揚花鎮經金浦江華濟物浦至梧柳洞路上圖, 平壤想像圖, 從仁川至漢城圖, 濟物浦居留地略圖
와타나베[渡辺]	1883년	慶尙左道路路上測圖
오카[岡]	1884~1886년	從京城至元山津路上圖, 從北青至中嶺鎭路上圖, 從德源至定平見取圖, 咸鏡平安兩道路上圖
미우라[三浦]	1886~1887년	京城近傍遊步期程內路上圖, 京城往復路上圖, 從平壤至永興路上草稿圖
가라다[柄田]	1887년	自全羅道順天至慶尙道昌原路上圖

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견된 한반도 지도 중 1883~1887년 지도를 참조하여 작성

동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이동경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미우라보다 3년 앞서 남해안의 해안도로를 정찰하였던 와타나베의 측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루트는 남해안에 있는 경상좌·우수영, 전라좌·우수영 등과 같은 조선의 수군기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남부지방의 정찰을 끝내고 한성으로 거점을 옮긴 미우라는 1887년 5월부터 수원-제물포-부평-김포-교하로 이동하면서 한성 부근을 정찰하였다. 그해 여름 그는 다시 교하에서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이동하면서 황해도 일대를 측량하였으며, 가을에는 평양에서 출발하여 희천, 강계, 영원 등을 경유하여 영흥에 이르는 루트를 정찰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장교들은 한반도를 끌고 루 누비면서 첩보활동을 행하였다. 그러나 小林·岡田(2008)이 시사한 것처럼 그들은 오직 지도제작에만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활약한 그들의 행적과 제작한 지도를 보면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표 4). 즉 각 장교들의 정찰 루트에는 들어 있으나 지도가 제작되지 않은 것은 카이즈의 동해안과 서해안을 비롯하여 이소바야시의 강원도·충청도와 평안도·충청도, 와타나베의 전라도 등이다. 또한 오카의 강원도와 경상도를 위시하여 미우라의 삼남지방과 가라다의 전라도 등의 지역도 지도가 제작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제작은 되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高木(1966)은 병요지도의 정비상황을 제1기(준비시대), 제2기(실측시대), 제3기(외국제지도입수시대)로 구분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지도들은 제1기와 제2기의 중간에 속하는 ‘초기실측시대’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渡辺·山近·小林, 2009).

#### 4. 측량지도의 행방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본토방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육군참모본부 大本營 참모육군 소좌 와타나베

[渡辺]는 당시 저명한 지리학자들을 규합하여 명제별로 병요지리조사연구를 시도하였다(金窪, 2004). 1944년 12월 15일 도쿄 마루노우치 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서 그 준비작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지리를 중심으로 역사·사회·정치·경제·법제·문화·외교·군사 등의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8명의 위원들 중 타다[多田文男]와 와타나베[渡辺光]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의 전황은 이오우지마[硫黃島]가 미군에 함락되고 미군 폭격기의 일본본토공습이 개시된 상태였다.

대본영은 1945년 1월 20일에 본토결전에 관한 작전요강을 하달하였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병요지리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병요지리조사연구회가 4월 30일 참모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연구회에는 군부에서 아리스에[有末精三] 중장과 각부 과장 및 반장들이 참석하였고, 지리학자는 15명이 참석하였다. 그들은 도쿄제국대 타다 조교수와 쓰지무라[辻村太郎] 교수를 비롯하여 도쿄문리과대 타나카[田中啓爾] 교수를 중심으로 육군예과사관학교, 육군기상부, 도쿄제국대, 도쿄문리과대, 도쿄고등사범학교, 가쿠슈인[學習院], 교토제국대 등의 각 조직에 속한 지리학자들이었다.<sup>10)</sup> 병요지리연구회에서 도출된 결론 중 하나는 미군이 일본본토에 상륙할 경우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었다. 연구회는 쿠즈쿠리하마[九十九里浜]와 사가미만[相模灣]의 두 지점을 예상하였다.

참모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육지측량부는 청사가 도쿄 미야케자카[三宅坂]에 위치해 있었다. 일본의 패전이 임박해 오자 육지측량부는 본토결전에 대비하여 대축척의 측도와 수정작업을 하거나 지도상에 거리방안과 수심을 보완하는 등 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첨가하는 응급수정 작업을 행하였다(金窪, 2004). 일본은 1944년 전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東京疏開에 돌입하였고, 육지측량부도 4월에 메이지대학 예과 건물로 옮겼다.

1945년 5월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근교로 제2차 소개가 결정되었으나, 5월 24일 밤 B29의 공습으로 신주쿠역에 있던 소개화물이 화염에 휩싸여 육지측량부가 보관하고 있던 많은 지도들이 소실되었다. 일본이 포

츠담선언을 수락하고 전쟁이 종료되자 참모총장 명령에 따라 육군기밀서류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들을 소각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중요 서류는 지도와 병요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8월 19일부로 「作戰用地圖處理要領」이 하달되었다. 그러나 지도의 원도와 초쇄본 그리고 삼각점 성과표는 가능한 보존하기로 하였다. 육지측량부의 「原圖原版處理區分表」에 의하면, 조선·타이완·만주·시베리아 등에 관한 원판과 원도는 소각하고, 초쇄는 은의하도록 결정하였다.

와타나베 소좌는 육지측량부의 장래를 우려하여 8월 17일 심야에 은밀하게 「陸地測量部處理要綱案」이란 의견서를 아리시에 중장에 품신하였다. 그 意見案에는 “일본육군은 해체되지만, 육지측량부는 국토부흥을 위한 필수기관으로서 내무성으로 이관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30일부로 내무성 관제를 개정하여 지리조사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육지측량부 조례가 폐지되어 육지측량부는 56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9월 1일 내무성 지리조사소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 국토지리원의 전신이 되었다. 이 명칭은 병요지리조사연구회에서 비롯된 것이다(久武, 2009; 小林, 2009).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도 중 일본에서 ‘外邦圖’라 불리는 외국지도는 자원과학연구소·도쿄제국대·도호쿠제국대·교토제국대 등으로 반출되었다. 1945년 9월에 지도정리를 담당할 인물은 와타나베 소좌를 비롯하여 도쿄제국대의 타다 교수와 기우치[木内] 조교 등의 지리학자였다. 또한 미군에게 발각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판단되는 지도들은 쓰레기장에 방치되거나 소각되었다(岡本, 2008). 참모본부로부터 지도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참모본부와 지리학자와의 인적 교류, 특히 병요지리조사연구회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金窪, 2004).

참모본부 육지측량부에서 제작되었거나 간행된 지도들은 일본의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으로 분산되었고(鈴木, 2009), 일부는 미군에 의해 압수되어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한반도 지도들은 주로 교토대학과 오차노미즈[お茶の水]대학에 소장되어 있다(京都大學博物館·京都大學地理學教室, 2005; お茶の水大學地理學教室, 2007). 대부분의

한반도 지도들(海圖 포함)은 ‘陸軍省寄贈’ 혹은 ‘海軍省寄贈’이란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쟁이 종료되기 전에 군부로부터 교토제국대학 지리학교실에 직접 기증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山村, 2004).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은 패전하자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한국에 방치한 것들도 다량 존재하지만, 을사늑약 이전에 제작한 것은 일본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모두 폐기 또는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883~1887년 제작된 지도들은 스미·久武(2009)가 지적한 것처럼 유출경로를 파악할 수 없으나 미군정 하에서 주둔군에 압수되어 미국으로 옮겨진 것들로 사료된다. 이들 지도는 한국과 일본에는 전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자 미국 의회도서관 지도과(map division)에서 보관하다가 1962년 1월에 분류작업을 마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육지측량부 지도는 현재 의회도서관 이외에도 클라크대학과 위스콘신대학을 비롯하여 미국지리학회(AGS) 등지에 분산되어 있다(久武, 2003).

##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선왕조 말기에 일본 육군성 참모본부 소속의 장교들로 조직된 간첩대가 한반도에 침투하여 비밀측량을 실시한 배경과 과정을 파악하고 그 실체를 규명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측량된 한반도 지도에 대한 고찰은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조선말 비밀측량에 의해 제작된 지도에 관한 본격적인 고찰은 본고가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오군란의 와중에 김대흥 등에게 살해된 호리모토와 이소바야시 대위 등의 유골은 인천에서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로 옮겨 합사되었다. 조일수호조약 체결 이후 최초로 일본군이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고종은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그들 장교들이 공사관 관원이었

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들은 참모본부 소속의 첩보원의 신분만을 감추고 한반도를 정탐한 간첩이었다. 비록 강화도조약의 제7조와 제물포조약 중 수호조규속의 제2조에 의거하더라도 조선의 해도 작성과 국내여행만 허락한 것이지 내륙에 대한 측량침략이 중심이 된 첩보행위를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2. 참모본부는 한반도 파견장교들에게 목적에 의해서 신속하고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路上測圖와 目測迅速圖를 제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래에는 1885년경부터 노상측도가 행해진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882년 이소바야시 중위에 의해 최초로 노상측도가 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장교들의 정탐 루트 역시 종래의 연구와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3. 색인도에 나타난 장교들의 정찰루트를 살펴보면, 카이즈는 북부지방과 강원도를 정찰하였고, 이소바야시는 주로 중부지방을 활동무대로 하였다. 이와는 달리 와타나베와 가라다는 경상도와 전라도 혹은 충청도에 걸친 남부지방의 조사에 주력하였고, 오카는 주로 북부지방을 활동무대로 삼았다. 그리고 미우라는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포함한 광역적 조사를 행하였다. 이들 장교들의 정찰활동은 반드시 지도제작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지도제작 이외에도 『兵要地誌書』의 간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주요 군사시설과 행정기관 등에 대한 첩보활동 목적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883~1887년 제작된 지도들은 미군정 하에서 주둔군에 압수되어 미국으로 옮겨진 것들로 추정된다. 이들 지도는 한국과 일본에는 전무하며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자 미국 의회도서관 지도과에서 보관하다가 1962년 1월에 분류작업을 마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육지측량부 지도는 현재 의회도서관 이외에도 클라크 대학과 위스콘신대학을 비롯하여 미국지리학회 등지에 분산되어 보관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 말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일제의 팽창주의가 고조에 달하면서 정보장교들로 구성된 첩보요원들의 측량침략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작성한 지도는 도식이

확정되기 이전 중세 말 또는 근대지도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들 지도의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과 6명 장교 외의 요원들이 작성한 지도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미루겠다.

## 주

- 1) 이 지도는 그의 제자 다카하시[高橋景保]가 이어받아 이노우의 사후 4년 뒤인 1821년에 완성되었다. 이 지도는 1828년 독일인 Siebold가 해외로 반출하려다 발각되어 다카하시의 아들이 처벌을 받은 '시볼트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남영우 · 김부성, 2009).
- 2) 『朝鮮國京城之略圖』는 일본의 구마모토[熊本] 鎮臺, 『漢城近傍圖』는 히로시마[廣島] 鎮臺의 참모본부에서 인쇄되었다(櫻井, 1979). 『鎮臺』란 1888년 근대적 군사조직으로 편성되기 전 關東區의 사단급 편성단위를 가리키며 사단본부를 지칭한다.
- 3) 『近世人物誌』 이소바야시 대위(3호) 문고에 의하면, 당시 일본군의 강압에 의해 교수형에 처한 김대홍과 원한갑은 무참하게 죽었다고 전한다. 즉 칼로 참수를 하였으나 칼날이 무더 63회를 내리쳐서야 사망하였다고 하니 그 고통이 어마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사형날짜를 12월 14일로 정한 것은 한성조약에 따른 것이다.
- 4)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국이 군대를 주둔시켜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획책함에 따라 위기에 몰린 개화파는 일본공사관의 지원을 확인하고 1884년 12월 4일 우정국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주도권을 청국에 빼앗긴 일본은 정세를 만회하기 위해 1885년 텐진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 5) 일본해군의 수로국에서 제작한 지도는 1875년의 『東海岸朝鮮圖』(1:12,150 축척)를 비롯하여 1876년의 『月尾島海峽略測圖』(1:7,627 축척), 『全羅道順天浦略測圖』(1:7,627 축척), 『巨濟島及閑山島』(1:7,627 축척)와 1877년의 『朝鮮國釜山港』(1:18,226 축척) 등이 있다.
- 6) 일본에서 『圖式』이란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28년식 지형도이므로 1895년부터의 일이다(清水, 1988).
- 7) 1882년(고종 19) 청국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한 統理衙門을 확충 개편한 것이다(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1886). 예하 기관으로 征推 · 掌交 · 富教 · 郵程의 4司를 두었으며, 관원으로 督辦(장관) · 協辦(차관) · 參議(국장급) 등을 두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일어나 많은 관원이 살해당하였고 청국 세력이 제거되자 1885년 그 기능이 의정부로 이관되었다. 『關



草』는 각 지방에서 의정부로 보내온 關文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책이다.

- 8) 경위선이 표시된 색인도는 69개 방격으로 구성된 원본(미국 국회도서관 소장)을 토대로 필자들이 재작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교들의 경찰 루트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하여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와 그들이 제작한 지도를 대조하여 보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 9) 이소바야시의 마지막 행적이 한국측(충청도) 자료와 일본측(강원도) 자료가 상이한 것은 그림 3(2)에서 보는 것처럼 두 지방을 거쳐 경기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 10) 여기서 언급한 대학명은 도쿄제국대(현 東京大)·도쿄文理科大(쓰쿠바大 전신)·도쿄고등사범학교(쓰쿠바大 전신)·학습원(현 學習院大)·교토제국대(현 京都大)·도호쿠제국대(현 東北大)를 가리킨다.

### 참고문헌

남영우, 1992,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한 병요조선지 지 및 한국근대지도의 작성과정,” 한국문화역사지리, 4, 77-96.

남영우, 2007, “舊韓末과 日帝強占期の 韓半島 地圖製作,” 한국지도학회지, 7(1), 19-29.

남영우, 2009, “광복 이전의 지도제작 및 이용,” 한국지도학발달사,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 311-349.

남영우·김부성, 2009, “독일 지도학자 Siebold의 생애와 업적,” 한국지도학회지, 9(1), 1-12.

이기석, 2009, “우리나라 지도역사의 개관,” 한국지도학발달사,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 3-9.

이선근, 1961, 韓國史: 最近世編, 을유문화사.

朝鮮王朝實錄, 187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統理交渉通商事務衙門, 1886, 平安道關草, 金川 및 義州.

한국근대사학회 편, 2008, 한국근대사 강의, 한올아카데미.

岡本次郎, 2008, 外邦図の東北大學への搬入経緯をめぐって,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5, 39-48.

岡田郷子·小林茂, 2007, 植民地期以前の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の軍用地圖製作, 2006年人文地理學會大會研究發表要旨, 30-31.

京都大學博物館·京都大學地理學教室, 2005, 外邦図目錄, 京都大學, 京都.

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京城發達史, 日韓印刷株式會社,

京城

高木菊三郎, 1931, 日本地圖測量小史, 古今書院, 東京.

高木菊三郎, 1966, 日本における地圖測量の發達に關する研究, 風間書房, 東京.

橋本周延, 1884, 朝鮮變報, アジ歴複寫史料.

久武哲也, 2003, 旧資源科學研究所所藏の外邦図と日本の大學·研究施設等所藏の外邦図との系譜關係,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1, 15-23.

久武哲也, 2009, 『兵要地理調査研究會』について, 小林茂編, 近代日本の地圖製作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 大阪: 大阪大學出版會, 388-402.

今里悟之·久武哲也, 2003, 在アメリカ外邦図所藏狀況: 議會圖書館·AGS Golda Meir 圖書館·ハワイ大學ハミルトン圖書館の調査から,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1, 33-36.

今里悟之·久武哲也, 2009, 日本および海外における外邦図の所在狀況と系譜關係, 小林茂編, 近代日本の地圖製作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 大阪: 大阪大學出版會, 32-46.

金正明編, 1963, 日韓外交資料集成, 巖南堂書店, 東京.

金窪敏知, 2004, 終戦前後における參謀本部と地理學者との交流および陸地測量部から地理調査所への改組について: 渡辺正氏資料をもとに,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2, 39-45.

渡辺理繪·山近久美子·小林茂, 2009, 1880年代に展開した日本軍將校による朝鮮半島の地圖製作: アメリカ議會圖書館所藏図の検討, 地図, 47(4) 게재예정.

鈴木純子, 2009, 國立國會圖書館所藏の外邦図, 小林茂編, 近代日本の地圖製作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學出版會, 大阪, 47-54.

山近久美子·渡辺理繪, 2009, アメリカ議會圖書館所藏の日本軍將校による1880年代の外邦測量原圖,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6, 84-87.

山村亞希, 2004, 京都大學總合博物館收藏外邦図の目錄作成作業について,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2, 74-77.

小林茂, 2009, 「近代日本の地圖製作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學出版會, 大阪.

小林茂·岡田郷子, 2008, 19世紀後半における朝鮮半島の地理情報と海津三雄, 待兼山論叢·日本學編, 大阪大學文學研究科, 42, 1-26.

- 小林茂 · 山近久美子 · 渡辺理繪, 2009, 初期外邦図の作製過程と特色,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6, 101-105.
-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2009, 「陸軍省稟告故磯林歩兵大尉外五名靖國神社へ合祀ノ件」, (国立公文書館 > 内閣 > 公文別録 > 公文別録 > 公文別録 · 朝鮮事变始末 明治十七年 · 第二巻 · 明治十七年)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レファレンスコード A03023658800
- 櫻井義之, 1979, 朝鮮研究文獻誌: 明治 · 大正編, 龍溪書店, 東京.
- やまと新聞, 1886, 近世人物誌, 日清戦争前夜の日本と朝鮮, 12月 11日号 附録(野馬臺生), 早稲田大學圖書館, 磯林大尉3號文庫.
- お茶の水大學地理學教室, 2007, 外邦図目録, お茶の水大學, 東京.
- 歴史學研究會 編, 1991, 新版日本史年表, 岩波書店, 東京.
- 陸軍參謀本部 編, 1888, 朝鮮地誌略1, 復刻板, 村上勝彦 解題, 1981, 龍溪書舎, 東京.
- 牛越國昭, 2005, 潛入盜測: 村上手帖と村上千代吉の活動, 三光作戦調査會 9月例会.
- 李鎮昊 · 全炳德, 2007, 日本陸地測量部による朝鮮半島測量の歩みと朝鮮地方民の抵抗, 土木學會論文集, 63(3), 435-444.
- 李進熙, 1990, 好太王碑と任那日本府, 學生社, 東京.
- 日本陸軍參謀局, 1875, 朝鮮全圖.
- 長久保光明, 1937, 明治初期の地圖事件のいきさつ, 測度教程, 前田千成堂, 東京.
- 佐藤侑, 1988, 創世記の陸軍省參謀局: 『陸地測量部沿革誌』を檢證する, 日本地圖資料協會編, 古地圖研究, 日本地圖資料協會, 東京, 355-370.
- 中野尊正 編, 1978, 地圖學, 朝倉書店, 東京.

- 參謀本部 編, 1882, 參謀沿革誌[第一号], 歴史草案.
- 參謀本部索引圖, 1887, 미국의회도서관 소장.
- 清水靖夫, 1988, 正式測図以前の諸測度概観: 西日本編, 日本地圖資料協會編, 古地圖研究, 日本地圖資料協會, 東京, 395-425.
- 村上勝彦, 1981, 隣邦軍事密偵兵要地誌[解説], 陸軍參謀本部 編, 朝鮮地誌略, 龍溪書店, 東京, 3-48.
- 海津三雄, 1880, 元山之記, 東京地學協會報告, 1(9), 1-8.
- 海津三雄, 1884a, 朝鮮北部内地實況: 義州紀行, 東京地學協會報告, 6(2), 3-41.
- 海津三雄, 1884b, 朝鮮北部内地實況: 慶興紀行, 東京地學協會報告, 6(3), 11-29.
- Clark, D., 1996, *Urban World / Global City*, Routledge, London.
- Nam, Y. W., 1997, Japanese military survey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eiji Era, *New Direction in the Study of Meiji Japan*, Brill, Leiden, 335-342.

교신: 이호상,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이메일: leehs0812@hotmail.com, 전화: 02-880-5099)

Correspondence: Ho-Sang Le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e-mail: leehs0812@hotmail.com, phone: +82-2-880-5099)

최초투고일 09. 10. 15

수정일 09. 11. 05

최종접수일 09. 11. 09